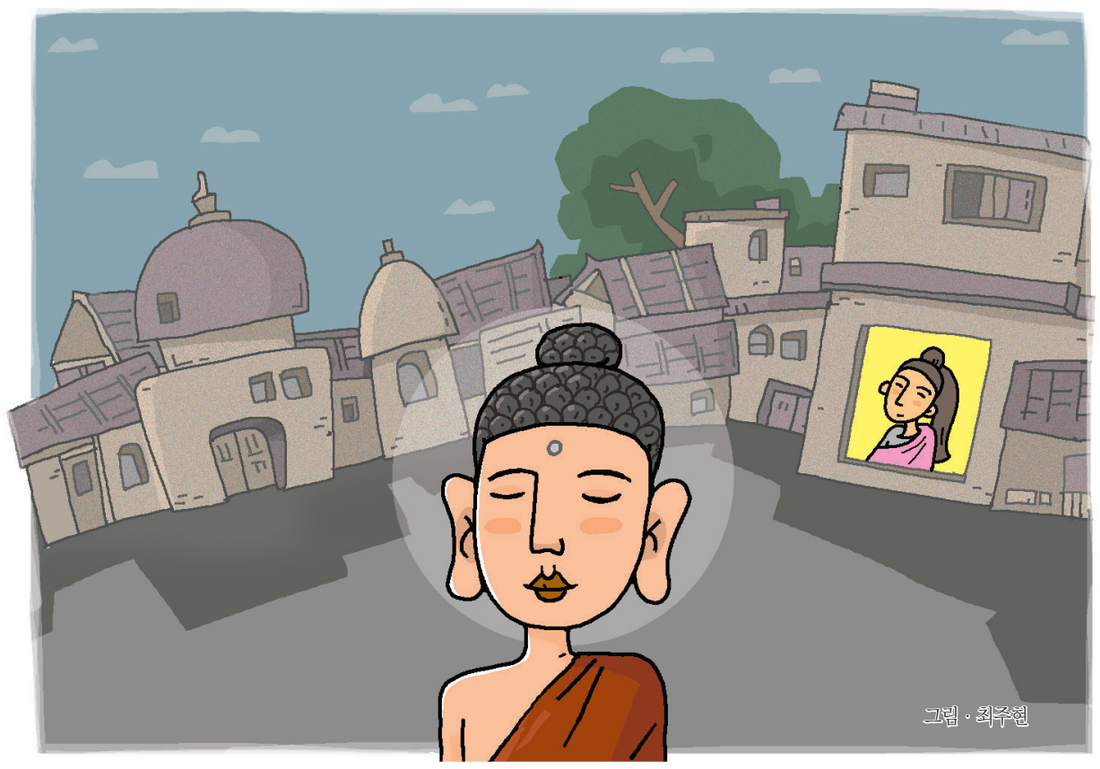
이미령의 스토리텔링 경전에세이 ❸ 부처님 일대기를 읽자(2)

▶한줄 요약
야소다라의 '덕'은 무엇인지, 부처님에게 세속의 삶이란 게 무엇이고,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추구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곰곰 되뇌는 일! 이보다 더 진한 불교공부가 또 있을까.



"야소다라를 가만히 놔두세요"


그림 · 최주현

부처님 정각 이후 찾아간 카필라국
야소다라 "덕이 있다면 날 찾을 것"
제자 대동하고 아내에게 간 부처님
8년 만의 재회, 아내는 조아려 울뿐
마지막 갈망 내려놓길 기다린 뒤에
부처님, 아내에게 전생담을 설법해

보리수서 일어선 젊은 부처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룬 자,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붓다라고 불릴 뿐입니다. 붓다가 되기 이전과 되고 난 후 그 위상은 너무나 다릅니다. 예전에는 한 소국가의 왕자였고, 열반의 경지를 얻을 수 있을까를 모색하던 구도자(보살)였다면, 이제 그분은 붓다가 됐습니다.

붓다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진리를 나눠준 대상은 아시다시피 5비구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과 함께 고행을 하다가 자신의 고행포기에 실망해 다른 곳으로 옮겨간 다섯 수행자들입니다.

부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고집멸도 사성제 법문을 들려주고 그들을 아라한의 경지에 오르게 했다는 일화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 며칠 만에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마을로 탁발 가서 음식을 얻어오면 나눠 먹고, 그 다음엔 다른 몇 사람이 음식을 얻어와 나눠 먹으며 그렇게 긴 시간 진리를 이야기하며 지냈지요. 붓다가 되어서 첫 번째 안거를 이렇게 5비구와 보냅니다. 교주가 있고 그 제자가 있고 법의 대화가 있으니 지구 역사에 삼보라는 것이 처음으로 출현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후에 붓다는 마가다국의 가장 훌륭한 수행자요, 바라문인 가섭 삼형제를 만나러 길을 떠났고, 그 삼형제를 교화하면서 두 번째 안거를 보냈습니다.

어떤 경전에는 가섭 삼형제를 가리켜서 제일 큰 형인 우루벨라 가섭이 120세, 둘째 형인 가야 가섭이 100세, 셋째 나제 가섭이 80세라고 합니다. 정말 그 시절에 그렇게까지 장수할 수 있었을까가 의문입니다.

아무튼 이 삼형제는 계급도 최상위인 바라문이요, 숲속에서 지내며 불을 섬기면서 사제로서의 의무에도 매우 성실해서 마가다국에서는 으뜸가는 정신적 귀의처였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계급으로 보나, 세력으로 보나, 심지어 나이로 보나 고타마 붓다는 한참 밀리는 처지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처님의 세속 계급은 바라문이 아닌 크샤트리아였고, 고국 카필라국도 강대국이 아니며, 나이 또한 이제 겨우 서른여섯입니다.

나는 부처님 일대기를 읽어가면서 자꾸 그분의 세속 나이를 떠올리는 이상한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부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서른여섯 살의 젊은 부처님은 120세, 100세, 80세 바라문들을 교화하였고, 나아가 강대국 마가다국의 빔비사라왕을 만나 그를 교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 발길은 고국으로 향합니다. 카필라바스투! 아버지 숫도다나왕(정반왕)이 이제나 저제나 목을 늘이며 기다리고 있는 땅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고향에 도착해서 핏줄인 석가족을 교화하는 이야기는 여러 책에 등장하고 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신의 옛 아내를 찾아가는 에피소드가 그렇게 흥미로울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들면 짝을 찾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늙어가는 것이 보통의 삶이지요. 이런 보통의 삶에서 튕겨 나간 싯다르타가 몇 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족 친지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금의환향이라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만남이 참으로 편안치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옛 아내 야소다라입니다. 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참으로 절절해서 가만히 눈을 감고 상상해보면 "아이고, 야소다라!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뎠나요? 그리고 어떻게 남편을 완전히 마음에서 떠나보냈나요"라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습을 보이지 않는 야소다라

고국 카필라바스투를 찾은 부처님은 성으로 직진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다니며 탁발을 합니다. 그런 '아들'을 말리며 제발 궁에 와서 예전처럼 지내라고 아버지 정반왕이 만류하지만 부처님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왕의 혈통 일이고, 지금의 이 탁발은 부처님 혈통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궁으로 들어가 아침공양을 받습니다. 왕궁 사람들이 전부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이것보다 더 진귀한 볼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부처님에게 법문을 듣겠다는 마음보다는 예전의 그 왕자마마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더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직접 대하면서 그 호기심은 존경심으로, 존경심은 신심으로 변해갔지요.

부처님의 왕궁에서의 식사는 무사히 마쳤는데 그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야소다라입니다. 옛 아내입니다. 궁중의 여인들이 진즉에 몰려가서 청했지요.

"왕자님이 돌아오셨어요. 궁에서 식사를 하실 예정입니다. 야소다라님도 나아가서 절을 올리셔야지요."

하지만 야소다라는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덕이 있다면 왕자께서 나를 찾으실 것이다. 그때 나는 절을 올리겠다."

이런 마음이 통했을까요?

부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발우를 부왕에게 맡기고, 옛 아내의 거처로 향합니다. 나는 부처님 일대기를 읽으면서 이 대목이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궁궐 저기 안쪽에서 자신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함께 자식을 낳은 사이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전부였지만, 이제 그런 남편은 없습니다. 세속의 달콤한 욕정은 이미 넘어섰고, 혈연과 지연으로 끈끈하게 맺어진 관계 또한 그에게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붓다'라는 존재가 되어 수많은 구도자들의 정신적 스승이 되어버렸는데, 아직까지 궁궐 복도 저기 안쪽에는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한 여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 야소다라의 말이 흥미롭지 않나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이라거나, "옛정을 생각해서"라는 말이 아닌, "내게 덕이 있다면"이라는 그 말!

부처님은 그에 호응하여 몸을 일으켜 그녀의 방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이 말은 야소다라가 그저 한 남자의 옛 아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부처님을 불러서 자기 앞으로 오게 할 만큼의 덕을 쌓은 사람임을 부처님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 대목에서 또 살짝 호기심이 동합니다. 그때 모여 있던 모든 궁궐 안 사람들은 얼마나 야릇한 호기심에 빠져 들었을까요? 부처님 나이 37세라고 생각합니다. 젊다면 아주 젊은 나이이고, 그렇다고 풋내기 청춘 시절은 아닙니다. 젊은 부처님이 옛 아내의 방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혼자가 아니었지요. 제자 두 사람을 대동하고 들어갑니다. 사리불과 목건련은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거나 혹은 거의 동년배로서, 부처님 제자가 되기 이전부터 마음공부를 충실하게 해온 구도자입니다.

야소다라의 방으로 들어가다

부처님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기까지 야소다라는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요? 나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그러다 정작 부처님이 그냥 성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조바심도 분명 일었을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자신을 향해 천천히 곧바로 다가오는 '옛 남편' 싯다르타를 보았을 때, 본능적으로 온몸을 그 아래로 내던졌습니다. 8년을 억눌러 온 온갖 상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고, 눈물이 시냇물처럼 줄줄 흘렀을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와락 안고 싶었겠지만, 낯선 두 성자가 곁을 지키고 있기에 야소다라는 그저 엎드려 부처님 발을 부여잡고 흐느끼고 또 흐느낄 뿐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야소다라가 내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아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이야기는 〈자타카〉에 담겨 있습니다. 경전에는 야소다라가 눈물바람이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꾸 그렇게 읽힙니다. 그 모든 감정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는 법일 터이니 야소다라는 분명 그 모든 회한을 부처님 발을 어루만지며 다 토해냈을 것입니다.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까요? 아니, 위로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각자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옛 아내의 마지막 갈망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준 부처님은 이윽고 부부의 전생이야기를 들려준 뒤에 가만히 등을 돌려 두 제자와 방을 나섰다지요. 그리고 훗날 야소다라는 부처님을 찾아 구도자로서 일생을 마쳤다는 후일담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읽을 때 나는 자주 멈춰 섭니다. 복덕과 지혜가 원만구족한 찬란한 태양 같은 부처님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인간적인 이런 만남을 만날 때면 부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부처님 일대기는 쉽게 읽힙니다. 그래서 책 한 권 뚝딱 읽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이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심오한 말씀 한 자락이니 그걸 들려주는 경전을 소개해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야소다라의 '덕'은 무엇인지, 옛 남편 싯다르타는 왜 그리 매정하게 옛 아내를 안아주지도 않고 기다렸다가 떠나가는지, 부처님에게 세속의 삶이란 게 무엇이고,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추구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곰곰 되뇌는 일! 이보다 더 진한 불교공부가 또 있을까요? 부처님 일대기를 읽읍시다. 천천히!

〈경전이야기꾼, 불교강사〉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New
캔바스 수행화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 (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절찬 판매중!!


그레이화이트 그레이블랙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87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 소 재 : 캔바스 (내피없는 시원한 재질)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